

국어교육의 입장에서 본 통합 논술 교육의 의의

김경주*

< 차례 >

- I. 들어가기
- II. 논술을 바라보는 시각-시험과 학습
- III. 통합 논술의 의의 1-학습 도구로서의 역할
- IV. 통합 논술의 의의 2-사고 교육으로서의 역할
- V. 국어교육과 통합 논술 교육
- VI. 나가기

I. 들어가기

논설문, 논증문, 사설, 칼럼과 같이 필자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비슷한 유형의 글들 속에서 유독 논술은 대학 입학시험 제도와 맞물려 주관식 기술형 시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¹⁾ 이는 1985년 처음 대학 입학 전형에서 각 대학이 논술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주관식 서술형 시험을 출제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후 논술이라는 용어는 ‘논술 시험’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논술에 대한 논의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 논술을 다루는 많은 연구물(이병민(2005, 2007), 원진숙(2007), 박정하(2005, 2007), 노호원(2007) 등)들이 논의의 상당한 부분을 논술의 개념을 확정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 논술 시험의 정체가 모호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는 또한 논술 개념의 혼란이 논술 행위의 본질적인 면에 있다기보다는 논술 행위의 활용적인 면에서 제기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는 대부분 대학 입학 제도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있다.

논술에 대한 논의들은 논술 교육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교육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정상적인 공교육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논술을 입학시험 도구로 규정하는 이상 이 논술 교육을 통해서 고교 교육이 정상화된다는지 사교육의 영향이 덜어진다는지 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2, 3년간 우리 사회에서 논술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어떤 방식으로 불타올랐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²⁾

우리 교육의 문제를 토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식 전달 수업, 선다형 평가의 만연으로 다양하게 문제에 접근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적음을 탓한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도는 지식이 생산 활용되는 사이클을 짧게 하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활용되거나 변화하지 못하는 지식은 이미 쓸모없는 지식으로 치부된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지식을 많이 가지기보다는 필요한 지식을 찾을 수 있는 능력, 또 그 지식을 자신의 용도에 맞게 변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치중하고 문제를 규정하거나 해결해내지 못하는 지금의 교육은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잃어버린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논술은 학생들의 능력을 증명해내는 시험 도구로 바라보기보다는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을 대신하여 지식을 탐구하고 학습자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도구로서 바라볼 필

2) 이미 2009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수능 시험 결과를 등급제로만 제시하지 않을 것이며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정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높이고 논술은 폐지 혹은 축소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특히 논술은 전형요소로 사용하는 비용이 큰 요소이므로 대학으로서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감안할 때 논술 점수보다는 수능 점수가 훨씬 효율적인 전형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대학들이 논술 시험을 확대하면서 내세웠던 근거들과도 상치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요가 있다. 이 논문은 논술을 대학 입학 전형 요소라는 입장보다는 바람직한 학습의 도구라는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문제를 규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관점을 탐구하고 문제에 맞게 그 지식을 끌어들이는 논술 능력은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질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능력이다. 이는 논술 교육이 학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을 찾아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킨다는 점에서 도구 교육적 성격과 사고 교육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논술의 이러한 성격은 국어교육이 상정하는 국어과 교육의 주요 성격과 유사하다.

국어교육이 도구적 성격과 사고 교육적 성격을 지닌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여전히 제재 이해 중심의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 논문은 논술 교육과 관련하여 국어교육 실행의 방향을 재검토하고 이의 가치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학교 교육에서의 국어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II. 논술을 바라보는 시각—시험과 학습

국어교육의 입장에서 논술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논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논술은 시험 도구라는 측면과 학습 도구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논술이 시험 도구, 다시 말해서 평가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논술이 상급 학교 입시의 전형 요소로 사용된다는 점을 가리킨다. 그에 비하여 학습 도구로 다루는 것은 논술이 교수 학습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시험으로서의 논술을 바라보는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원진숙(2007 : 203~213)은 논술 개념을 ‘글쓰기로서의 논술’과 ‘논리로서의 논술’, ‘통합 교과형 논술’로 나눈다. 글쓰기로서의 논술은 글쓰기의 목적, 주제, 필자, 독자 등에 의해 규정되는 글쓰기 상황의 특수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자신의 고유한 생각이나 주장이 분명히 드러내고 이 주장을 합리

적 논거들을 동원하여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독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글쓰기로서의 논술은 ‘주어진 과제를 논리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그 결과를 언어로 서술하는 글쓰기 방식(김대행 외. 1995)’이라는 인식에서 기반하는 것이라 본다.

이에 대해 대학 입시의 한 과목으로 부상한 논술은 중등 교육과정 안에 독립된 교과로 존재 하지 않는 범교과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필자의 개성적인 목소리나 설득과 같은 글쓰기의 요소보다는 논리에 무게 중심을 두게 된다. 이렇게 ‘어떤 문제나 쟁점에 대한 논증을 통한 문제 해결적 글쓰기’로서 정의되는 소위 ‘논리’로서의 논술은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강조하면서 글쓰기로서의 논술 개념과 상당한 거리를 두게 된다(원진숙, 2007 : 207~209). 원진숙은 이 ‘논리’로서의 논술은 논리적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로 글쓰기 능력을 인식하게 되므로 논술 능력은 논증 능력을 기반으로 신장되는 것이고, 글쓰기 능력은 어법에 따라 문장을 만드는 도구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글쓰기의 가치를 사고를 표현하는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 ‘논리’로서의 논술이 이후 ‘고전 논술’로 진화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고전 논술’은 ‘논술+논리’라는 인식 때문에 글의 내용이나 필자의 개성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개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가치관을 구현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주요 영역에서 논제와 논거를 뽑고 논리 형식에 맞게 전제되어 있는 답을 적절히 배치하는 답안 구성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런 관점은 언어 조직술 위주의 기형적인 방식의 논술 교육을 도래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 교과형 논술은 동일한 등급의 내신 성적과 수학 능력 시험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지원하는 다수의 학생들을 변별해야 하는 대학 당국이 교육지책 차원에서 새롭게 개발하여 도입한 배경(윤여탁, 2005, 원진숙(2007 : 210)에서 재인용)으로 볼 때 본고사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본다. 특히 이 통합 교과형 논술은 논술이라기보다는 종래의 대학별

주관식 본고사를 변형한 시험 형태를 방불케 하는 변종된 논술 본고사라는 혐의를 벗어나버리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지만 이를 통해 교과와 교과의 단순한 통합이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내면에서 길러지는 ‘영역 전이적인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의 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또 특정 교과와 암기된 지식을 묻고 그 답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결과 중심형 시험’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주어진 문제 상황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사고로 재구성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심형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를 짐작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교육을 실천해 본 전례가 있었던가 하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논술은 여전히 상급학교 입학시험의 전형 요소이며, 이 전형 요소가 실제 고등학교 교육과 긴밀한 상관 관계가 없는 방식의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즉 학교에서 가르쳐지지 않은 것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실제 이들이 평가 도구로서의 가치가 적절한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의는 국어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이들이 논술의 개념을 다루는 경우에도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영어 교육 전공자인 이병민(2005)의 논술 시험에 대한 논의에서도 논술 시험을 글쓰기 시험으로 보고 ‘글쓰기’, ‘지식’, 그리고 ‘사고 양식’의 결합체로서의 논술을 설명했다. 특히 ‘사고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논술이라는 글쓰기 양식은 우리나라 문화의 보편적 양식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이런 사고와 글쓰기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지니기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 사회 문화에서는 가르쳐지지 않았고 또 가르쳐지기도 어려운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형국(이병민, 2005 : 102)’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논술을 시험의 개념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논술이 주로 사용되는 장면이 시험 장면이기 때문에 논술을 시험과 떼어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논술은

그 자체가 시험의 내용이나 방식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그 시험을 통해 밝히고 싶은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이다. 그런 점에서 논술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하는 부분은 논술 시험의 가치를 논의하는 것과는 구별이 될 필요가 있다.

논술(論述)은 ‘논하고 쓴다’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볼 때, 글쓰기의 한 갈래로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 논술의 논하고 쓰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생각을 글로 옮긴다는 것보다 훨씬 크다. 글쓰기는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고 소화하고 이를 재생산하는 과정이며 사고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를 통해 지식과 정보는 양과 질을 더해갈 수 있으며 사고를 더 깊이 더 풍부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글쓰기의 특성으로 인해 학습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글쓰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술에 대한 논의는 글쓰기의 이런 특성과 의의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교육을 비판할 때 지식의 양만을 중시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는 질적인 접근이 부족하다고 한다. 또 학교 교육은 잘 정리된 지식을 암기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데 치중하고 학생들은 그 정리된 지식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므로 지식이 삶을 유용하게 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게 하는 질적 심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한다. 통합 교과형 논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서울대가 내놓은 ‘2008학년도 정시 모집 논술고사 예시 문항’과 관련한 보도 자료³⁾는 ‘통합 교과형 논술’의 개념과 성격을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고 그 답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결과 중심형 시험’ 대신에 ‘주어진 문제 상황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사고로 재구성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규정하면서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서울대학교 2008학년도 정시 모집 논술고사 예시 문항 발표 보도 자료(2005. 11. 28).

<개념과 성격>

- 개별 교과 지식이 통합되고 교과 영역 간에 전이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
-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고 그 답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결과 중심형 시험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주어진 문제 상황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사고로 재구성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과정 중심형 시험
- 모든 사고는 통합적 인지활동이며, 중등과정의 개별 교과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총체로서의 사고력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구성요소
- 통합교과형의 개념은 교과와 교과의 단순한 통합이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의 내면에서 길러지는 사고력의 통합을 의미 함. 따라서 통합교과형 논술을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교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 교과가 제안하는 여러 학습활동을 자기주도적으로 충실히 수행하는 것 자체가 논술을 준비하는 바람직한 방법임.⁴⁾

이 보도 자료는 또 ‘논술고사 준비 방법’을 통해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논술 준비 방법(앞의 보도 자료 5쪽)은 ‘고등학교 전 과정의 교과서가 논술 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교재이며, 논술 주제는 국어나 작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과목에 걸쳐 도출될 수 있’으므로 ‘교과서의 내용을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교과서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독서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사고력을 배양’하고 ‘학생들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쓰고 토론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교사는 그 과정이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는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

4) 서울대학교 2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문항(2005. 11. 28) 발표 보도 자료(2쪽). 이 보도 자료를 시작으로 여러 대학에서 여러 교과의 내용을 통합하여 총체적 사고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논술 문항이 제시되었고 이 과정에서 ‘통합 교과’형 논술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어 갔다. 물론 이 개념 제시를 통해 ‘통합 교과’와 ‘교과 통합’이라는 개념이 구별되고 ‘통합 교과’가 ‘교과의 단순한 통합’이 아닌 ‘사고력의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지 하는 ‘통합 교과형 논술’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었다

서 내용의 단순 암기가 아니라 비판적 성찰, 다양하고 깊이 있는 사고력 배양을 지향하는 학생들을 길러 줄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배경은 또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지닌 인재를 요구하는 현대의 지식 기반 사회의 성격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이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지닌 인재의 필요성은 단순히 대학의 요구라고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런 요구는 교육을 통해 보편적으로 구현하려는 인간상과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논술은 이런 교육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도입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해 책을 읽고 생각하고 쓰고 토론하고 과정을 주도적으로 연마하는 수단으로 논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논술이 이런 과정에서 활용될 때 논술은 시험 혹은 평가의 도구가 아니라 학습의 도구로 다루어지게 된다.

Ⅲ. 통합 논술의 의의 1-학습 도구로서의 역할

이 장과 다음 장에서는 논술을 학습의 도구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의미역을 가지고 있는 ‘논술’의 개념을 굳이 ‘통합 논술’이라는 개념으로 특수화하려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논술’이라는 개념은 ‘논하고 쓴다’는 한자어의 의미 때문에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서술하는 행위’로 이해되기 쉽다. 즉 논술이라는 개념은 논술 시험 장면과 떼어내어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은 논술을 시험 도구보다는 학습 도구로 접근하려고 하며 이 때의 학습은 단순한 지식을 정리하는 차원의 학습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깊이 있는 지식을 재생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육을 통해 학습하는 지식을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경험으로 통합하고 학습을 지향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논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학

습자가 사고의 통합, 지식의 통합이라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특수화된 의미역의 ‘통합 논술’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⁵⁾

통합 논술이라는 개념은 또한 ‘통합 교과 논술’이라는 개념과 대비된다. 통합 교과 논술이 여러 ‘교과’의 지식과 사고를 통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비하여 ‘통합 논술’ 개념은 ‘교과’의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는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통합 논술’을 평가 도구로서 다루는 대신 학습의 도구로 다루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합 논술을 학습의 도구로 다루게 되면 통합의 범위는 학습의 범위, 학습의 단계에 따라 달리 상정될 수 있다. 학습 초기에는 한 교과 내에서 여러 가지 사고 자료를 통합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학습 후기에는 교과를 넘나드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와 활동을 넘나드는 수준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도구로서 논술을 다루기 위해서는 ‘통합 교과’라는 말로 ‘교과들’을 통합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 학습은 학습의 결과를 통해 기대되는 학습자의 내적 성장을 개별 교과적으로 설명하여 왔다. 개별 교과의 입장에서 학습자의 내적 성장을 설명하면 학습자들은 개별 교과가 구축한 지식의 구조를 잘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지향하게 된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개별 교과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지식의 구조는 각 교과의 체제에 따라 독립적인 체제를 형성한다.

우리가 실제 지식을 활용하는 장면을 보면 학교 교육에서처럼 개별

-
- 5) 통합 논술을 활용하는 수업은 필연적으로 과제 제시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통합 논술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논술 연수 등에서 만난 현장 교사들로부터 도움을 얻은 바가 크다. 입시 논술이 아닌 수업 현장에서 논술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구현해 보겠다는 의지를 지닌 교사들은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학습을 제공하자는 것이 지니는 의의를 강조하였다. 이들 교사들은 이런 의미 있는 경험으로서의 학습이 학습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수업을 의미 있는 경험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었다(동북고 교사들의 논술 수업을 비롯하여 금곡 여고, 숭실고 등 다양한 학교 현장에서 교실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논술 수업을 도입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며 연구자는 국어교육의 입장에서 이들 실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과에서 학습하는 지식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서는 쓸모가 덜하다. 지식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결합되고 심화되어서 우리의 삶에 유용한 형태로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 교육은 교과와 교과의 분리를 통해 이러한 지식의 통합을 막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은 각 교과의 학습에서는 분리된 지식을 학습하더라도 이들을 결합할 기회를 가지게 되면 유연하게 이들을 통합하여 접근한다. 오히려 통합을 못하는 것은 각 교과의 교사들이며 학생들은 교사들보다 더 유연한 방식으로 자신이 학습한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각 교과의 지식을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함께 개별 교과의 지식을 결합하고 더 나아가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통합 논술은 개별 교과의 학습을 통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통합 논술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과정은 아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료를 읽고 해석하여야 하며, 특정한 관점과 상황에 따라 그 자료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 자료를 적절하게 정리하거나 변형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질적으로 보이는 자료들을 결합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 논술의 과정은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학습은 주어진 자료, 혹은 찾아낸 자료를 읽고 이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분석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학습의 결과물과 연계시켜야 한다. 학습자는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대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도 하고 자신의 관점을 바꾸거나 이전의 지식을 재편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식을 판단하는 입장이 더 굳어지거나 또는 다르게 바뀌게 된다. 이런 변화는 결국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얻게 되는 내적, 외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통합 논술은 학습자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의 기술, 사고의 기술을 포괄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 논술의 이러한 성격은 학교 교육에서 국어교육이 맡고 있는 역할과 유사하다.⁶⁾ 국어교육의 성격을 규정할 때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이

도구 교과적 성격이다. 이는 국어과가 학교 학습의 도구가 된다는 것으로 국어과를 통해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익혀 다른 교과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국어교육에 관계된 이들에게는 매우 낯익은 개념이다.

박인기(2006 : 5~8)는 이런 도구 교과라는 규정이 국어과의 도구적 역할이 기본 문식성의 습득이라는 범위로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아 국어과에서 얻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이 타 교과의 지식, 기능들과 도구 이상의 왕성한 상호성을 가진다는 인식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본 문식력이 갖추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 이후 국어과 교육의 도구 교과적 성격은 그것의 고유성과 명료성, 지속성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타 교과의 학습 기능과 수직적 포함 관계를 규명하고 또한 타 교과의 지식, 기능, 가치들과 수평적으로 교호하며 학습의 시너지 효과를 밝혀 국어과의 도구적 성격을 넘어서서 국어과의 상호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⁷⁾

통합 논술은 박인기(2006)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상호성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 또한 통합 논술은 박인기(2006 : 7)가 상정하고 있는 ‘교과 경계의 유연화’, ‘경험의 전체성’과 같은 교육적 패러다임 변화의 징후와도 일치한다. 이는 경직된 교과주의적 풍토에 대한 반성으로 대화주의 또는 상호 주관적 해석의 패러다임을 도래하게 하여 각 교과가 상호성이라는 주제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며 통합 논술은 이런 연계의 방법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 6) 통합 논술을 하는 것을 쓰기의 한 유형으로 본다면 통합 논술의 역할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사용을 포괄하고 있는 국어교육의 역할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 7) 박인기(2006)의 논의는 ‘도구’라는 용어가 주는 기계적 인식을 경계하고 이를 대체할 개념으로 상호성을 설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도구’의 개념이 물리적인 형태와 작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일차적인 개념을 이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확장되어 더 넓은 개념역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읽기’라는 개념이 ‘글자를 음성으로 바꾼다’는 개념역에서 ‘문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악, 그림, 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혹은 더 광범위한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도구’라는 용어 역시 이와 같은 개념역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

학교 학습의 도구로서 통합 논술은 지식, 정보의 수용과 처리, 생산의 과정을 포괄한다. 지식과 정보는 생산 혹은 재구성을 염두에 두었을 때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다. 지식과 정보의 수용 그 자체에 교육의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면 지식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변용, 재생산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통합 논술 수업에서 지식과 정보의 수용 과정은 읽기 과정의 확대이며 연장이다. 학습 과정에서 읽기는 개별 지식을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학습의 대부분이 교재를 중심으로 교재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학습의 과정은 읽기의 과정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개별 교과에서 읽기는 국어과의 읽기와는 다르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국어과에서 읽기를 하는 것은 제재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Read to learn)뿐만 아니라 제재를 다루는 방식을 익히기 위한 과정(Learn to read)이다. 국어과에서의 읽기 행위는 제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면 이차적인 목표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을 익혀 좀더 효율적으로 제재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식을 익히도록 한다는 측면은 국어과의 도구 교과적 성격을 잘 설명해 준다.

그에 비하여 국어과가 아닌 교과에서의 읽기 행위는 그 교과가 다루는 지식이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어과가 아닌 교과에서 읽기를 한다는 것은 제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교재로부터 지식이나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은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다. 이 과정은 독자가 지니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교재로부터 얻어지는 지식과 정보가 서로 교류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관점이 싹트게 되고 독자의 내면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읽기를 잘한다는 것은 이 상호 작용의 과정이 풍부하고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촉발시키는 것은 독자의 필요와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목적을 상정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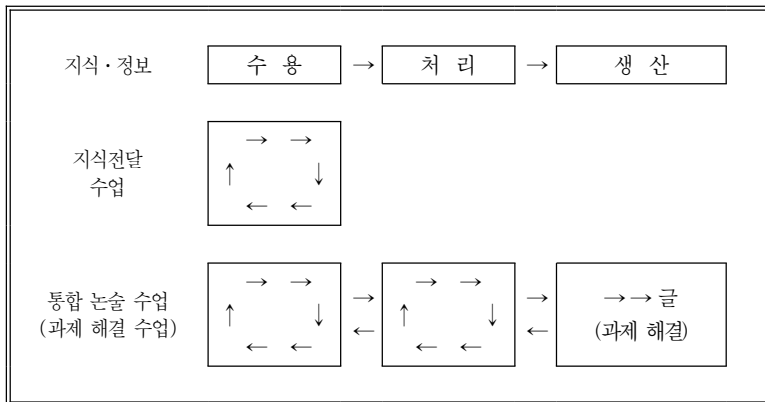
것과 그렇지 않은 정보처리는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우리가 경험한 중·고등학교 시절의 사회, 과학 계열의 내용 교과 수업을 회상해 보면 대부분의 내용 교과의 수업은 학습자의 필요나 요구를 배제한 채 교사가 제시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지식 전달식의 수업이었다. 이 수업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짧은 시간에 수용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유용하게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에 비하면 통합 논술 수업 방식은 학습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고 처리해야 한다. 특히 수용 과정과 처리 과정이 계속 환류하면서 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이들을 계속 환류하게 하는 힘은 과제의 구체성에 있다. 구체적인 과제는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학습자의 인지 행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얻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게 된다.

<지식 전달 수업과 통합 논술 수업의 비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얻는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이해력을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력과 활용력을 신장시키게 된다. 이는 통합 논술

학습의 경험을 통해 학습의 방법을 이해하고 익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여기에 통합 논술이 그 자체로서 학습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경험은 다양한 과제를 이해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제 자체에 대한 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비판적 이해력과 분석력, 과제 해결 능력은 현대 사회의 학습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통합 논술은 이런 능력을 신장시켜 학습자를 성장하게 하는 의미 있는 학습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V. 통합 논술의 의의 2-사고 교육으로서의 역할

통합 논술은 현대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학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사고 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어과 교육은 사고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상정한다(박영목 등, 1995 : 11~12).

<사고의 유형>

1. 지식의 습득 기능

- ① 이해 기능 ② 개념 형성 기능 ③ 원리 형성 기능

2. 지식의 적용 및 산출 기능

- ④ 표현 기능 ⑤ 문제 해결 기능 ⑥ 의사 결정 기능

이들 사고의 유형들은 언어를 매개로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며 산출하는 고등 사고 기능을 반영한다(천경록 외, 2001 : 21~23). 이해를 위한 언어 사용은 정보 전달 매체인 말과 글을 수용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복잡한 인지 과정이며 이 언어 처리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상사를 처리한다.

교육이 실행되는 과정, 다시 말해 교사와 학생 사이 혹은 학생 사이의 상호 작용 과정, 학습자가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생산하는 과정에는 언

어가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의 해결이 참여자들의 소통을 지향하고 공동의 의사를 결정하는 집단 사고를 추구하는 의사 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고 과정에서도 언어는 개인의 내부에서 논리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소통된다.⁸⁾

통합 논술의 과정에서 언어는 과제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과제 해결의 결과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매우 중요한 매체이다. 무엇보다도 논술 과정은 도출한 사고를 언어로 드러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통합 논술을 하는 것은 언어를 활용하여 사고를 다루고 더 나아가 사고의 심화와 확대까지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합 논술에서 언어를 다루는 능력은 사고를 다루는 능력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또 통합 논술은 과제 해결의 전 과정에서 이런 언어적, 비언어적 사고를 끊임없이 자극한다. 통합 논술에서 과제 해결 능력이 신장되는 것은 과제를 다루는 사고력의 신장일 뿐만 아니라 언어를 매체로 이 사고의 결과를 소통하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다.

통합 논술은 학습자가 사고의 통합, 지식의 통합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이 과정에서 다루는 지식이나 정보에 따른 다양한 사고 유형을 익히고 이를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개별 교과 지식들 혹은 개별 학문들은 대상을 처리하는 나름의 사고 유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 미술적 사고, 물리적 사고와 같은 개별 학문의 특성을 드러내는 사고의 개념을 명명하기도 하는 것이다.

개별 학문, 개별 교과가 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 사고 방법을 확립하게 된 것은 그 대상이 지니는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대상이 다르므로 그 대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근원을 지닌 지식이나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못지않게 개별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그 대상을 파악해야

8) 비네 검사와 같은 일반 지능 검사들이 대상에 대한 언어적인 조작을 이해하는 형태로 개발되는 것 역시 이런 이유이다. 그러나 이들 검사가 언어 능력과 사고력의 상관 관계를 지나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되기도 한다.

하는 상황과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면 항상 정해져 있는 우월한 접근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통합 논술은 대상을 개별적인 방식으로든 또 일반적인 방식으로든 접근할 수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대상을 상황과 요구에 따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리하는 것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 논술을 제대로 해 내기 위해서는 학습자는 자신이 다루어야 할 대상에 따른 다양한 접근 방식과 처리 방식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는 대상에 따라 알맞은 사고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합 논술은 대상에 대해 적절한 사고 능력을 익히고 신장시키는 사고 교육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V. 국어교육과 통합 논술 교육

앞의 두 장에서 통합 논술의 의의를 학습 도구라는 측면과 사고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찾아보았다. 그리고 교육의 실현 과정에서 통합 논술이 지니는 의의는 그것 자체가 교육의 내용이 되기보다는 교육을 실현하는데 간접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지식과 내용이라 대변되는 타 교과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위해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역할은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이 타 교과에 기능해오고 추구되어 온 역할과도 다르지 않다.

이는 논술 교육이 국어과의 입장에서 새로이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국어과의 성격과 역할을 가장 잘 규정하는 ‘도구 교과’의 개념은 국어과 교육의 실행 장면을 변화하는 주된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어교육 연구의 영역에서 ‘제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제재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목’, ‘결과로서의 글을 잘 쓰는 것보다 글쓰기의 과정을 통해 글쓰기를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과목’ 등 국어과 교육이 도구적이며 과정 중심적이라는 언급은 전혀 낯설지 않다. 오

히려 이런 도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국어 과목으로부터 좋은 글을 읽고 쓰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하였다는 반성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국어과가 도구 교과로서 다른 과목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국어과가 다루는 제재들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음미하는 것의 중요성이 아무리 커져도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능력의 효율성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이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는 이전과 달리 현대 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능력으로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사고 교육으로서의 통합 논술 교육의 역할은 국어교육의 성과가 다른 교과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국어교육을 통해 주로 다루어지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방식은 통합 논술이라는 과정을 거쳐 상황과 요구에 맞는 구체적이고 심화된 사고방식으로 재편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대상 자체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은 대상과 관련된 체계적인 처리 방식을 지니고 있는 관련 교과의 독특한 방식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 중심의 분절된 사고는 다시 통합 논술의 과정을 통해 다른 과목과 소통하고 통합되는 방식으로 통합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소통과 통합의 과정을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분류하며 문제를 해결해 왔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 논술이 지금까지 국어과가 타 교과에 대해 수행해온 역할을 좀더 심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통합 논술을 통해서 도야되는 인간의 능력은 인류가 가치 있게 여기는 능력과 다르지 않다. 인간과 자연을 탐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류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 논술은 인간이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대상들을 문제로서 탐구하고 해결해나가는 노력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본질을 실현한다는 것은 미래의 인류 발전을 이끌어갈 지금의 학습자들이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켜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발전을 추구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통합 논술은 인문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어교육은 통합 논술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우리가 교육을 통해 우리의 삶에 통합해야 할 지식과 정보는 개별 학문의 성과로 드러나겠지만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은 그 개별학문의 지식과 정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다루는 여러 교과 중 여러 지식을 다루고 조율하는 역할에 하기에 가장 적절한 성격을 지닌 교과는 국어과이다. 각 교과에서 통합 논술의 관점에서 교과 내용을 다루려고 할 때 각 교과 선생님들이 가장 곤란을 느끼는 부분은 교과의 내용이 아니라 개념을 다루는 사고 능력과 그것을 표현하는 쓰기 능력을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한다. 그 부분이 해당 교과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 교과의 교사들은 이 능력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한다. 그 때문에 실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해도 이를 정리하거나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분석이나 탐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⁹⁾

통합 논술을 현재의 학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용한 학습과 사고의 도구로서 발전시켜 학습 과정과 결과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런 변화를 선도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역량은 개별 교과보다도 국어과에 부여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어교육은 이런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오고 있었다. 지난 5차 교육과정 이래로 국어교육은 내용과 방법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¹⁰⁾ 통합 논술은 이제 이러한

9) 이 부분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통합 논술 실험을 하고 있는 교사들에게서 나온 문제이다. 이들이 다른 교사들에게 통합 논술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중 일부분을 보여주는 아래의 표는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교과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다는 것 외에 논제를 이해하고 사례를 관찰하는 등의 과정은 거의 국어과에서 다루는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과를 한 단계 나아간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국어교육이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국어 교사는 학교 학습의 과정과 방법을 변화시키고 학생들을 삶의 세계를 이해하고 즐거이 체험해나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내용과 방법을 분리하여 내용을 고려하여 방법을 단계화하고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르치는 일은 굳이 과정 중심이니 단계적 접근 모형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국어과 수업을 통해 항상 다루어지고 있던 일이다. 이 논문은 통합 논술의 의의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국어과가 삶의 본질, 배움의 과정을 구체화하여 학습자들에게 바람직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고, 각 실제 통합 논술의 사례에 대한 예시도 없이 통합 논술의 개념을 국어교육의 연장선에 놓은 것은 논리를 무시하는 비약일 수 있다. 그러나 통합 논술이 지향하는 바가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며 그 방법과 성격이 국어교육의 성격에 유사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교과와 테두리는 넘어서서 삶과 삶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6	지구온난화— 화학과 영화, 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와 독서를 수업에 이용하는 사례를 이해할 수 있다. • 영화나 독서를 서술형 평가와 연계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통합 논술 문항과 논제를 이해할 수 있다.
7	멘델의 법칙— 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델의 법칙’이라는 과학 개념을 과학사적 배경을 도입하여 지도할 수 있다. • ‘멘델의 유전’ 내용을 과학적 사고력을 자극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만들 수 있다. • ‘멘델의 유전’ 내용과 관련된 읽을거리를 이용하여 제시문과 논제를 만들 수 있다.
8	집단 유전— 생물과 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글쓰기의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다. • 집단유전의 개념을 실험 수업으로 설계하여 학생들의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 • 과학 수업 내용을 글쓰기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 10) PISA 시험과 같은 국가 간 학업 성취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이런 성과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VI. 나가기

논술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논술 교과를 만들자, 사범 대학 등에 논술과가 없는데 교사들이 어떻게 논술을 가르치겠느냐 등의 비판과 함께 예비 교사들이 대학에서 논술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 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었다. 이들 주장에는 논술이라는 영역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또 그것이 독립된 과목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단지 대학이 논술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논술을 배운 적이 없어서 논술을 못 가르치겠다고 하니 대학에 그 과를 만들어서 가르치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논술이 학습 과정에서 동원되는 도구로서 학습의 내용을 다루도록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논술 과목을 따로 상정한다는 것은 국어과가 있는데 이와 분리하여 쓰기를 다른 과목으로 만들어 가르치자는 것과 같다.

이 글은 이 통합 논술의 성격을 지금 학교 교육에서 국어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이는 논술이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는 특별하지도 독특하지도 않은 과정이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을 더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이 논술이라는 과목으로 한정되면 오히려 쓰기만을 치중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또 이 쓰기라는 입장보다 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국어과가 있는데 논술을 국어과와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 본 논문은 2008. 2. 28. 투고되었으며, 2008. 3. 4. 심사가 시작되어 2008. 3. 24.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대행 외(1995), “ 제1회 전국 중고등학생 논술 경시 대회 보고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동환(2007), “ 대학별 논술 고사의 정체성과 방향성”, 『국어교육학연구』 29집, 국어교육학회.
- 김병구(2006), “논술과 작문 교육의 관계 정립을 위한 시론”, 『국어교육학연구』 27집, 국어교육학회.
- 김영정 외(2004), 『비판적 사고와 학술적 글쓰기』, 서울대학교 교수 학습 개발 센터.
- 김종철(2007), “ 학문과 국어교육”, 『국어교육』 122집, 한국어교육학회.
- 김중신(2007), “국어교육과 통합 교과 논술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29집, 국어교육학회.
- 김현수(2006), 국어교과에 쓰이는 감상, 비판적 읽기, 비평 등의 용어에 대한 소고, 『새국어교육』 7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노호원(2007), 바람직한 논술 교육을 위한 방향성 탐구, 『새국어교육』 7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박인기(2006), “국어교육과 타교과 교육의 상호성”,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 박정하(2005), “고교 논술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철학과 현실』 66호, 철학문화 연구소.
- 박정하(2007), “논술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인문 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교육을 위한 모색”, 『시대와 철학』, 제18권 3호, 한국철학사상 연구회.
- 서울대 입학관리본부(2005), “2008 정시모집 논술 고사 예시 문항 보도 자료.”
- 서울대학교중등교육연수원(2007), 『2007년 논술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중등교사 연수』, 서울대학교중등교육연수원.
-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2007), 『중등논술 지도 교사 직무연수 기본과정』,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2007), 『중등논술 지도 교사 직무연수 전문과정』,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 에드워드 윌슨(최재천, 장대익 역, 2005), 『통섭—지식의 대통합』, 사이언스북스.
- 원진숙(2007), “ 논술 개념의 다층성과 대입 통합 논술 시험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22집, 한국어교육학회.
- 이병민(2005), “ 논술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논술 시험의 사회 문화적 고찰”, 『교육비평』 19호.
- 이병민(2006), “ 논술 고사의 성격 및 타당성 고찰”, 『국어교육』 121집, 한국어교육학회.

이인제(1998), “논술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의 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임철성(2006), “통합 논술 첨삭 지도 방법 고찰”, 『새국어교육』 74호, 한국국어교육학회.

<초록>

국어교육의 입장에서 본 통합 논술 교육의 의의

김경주

이 논문은 대학 입학시험으로 활용되는 통합 논술을 평가 도구가 아닌 학습과 사고의 도구로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통합 논술이 지식과 사고를 통합한다는 특성을 지니는 것을 토대로 교과 분리의 입장으로 개별화된 학교 교육을 과제라는 삶에 보다 직접적인 형태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결국 통합 논술이 학습 도구로서의 역할과 사고 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통합 논술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의미 있는 경험으로서 학교에서의 배움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학습의 경험은 교육의 본질에 좀더 근접한 학습이며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학습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논문을 국어교육이 이런 통합 논술의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즉 국어과는 개별 교과로 분리되어 있는 학습을 과제를 중심으로 지식과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하여 상황과 요구에 맞는 지식으로 재생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통합 논술 교육에서 국어교육과 국어 교사가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통합논술, 국어교육, 학습 도구, 사고 교육

<Abstract>

A Study of Integration Essay in Korean Education

Kim, Kyoung-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explanation that the integration essay is not an assessment but learning and thinking device. The integration essay integrates the consideration and the knowledge, and is able to access the essence of education. This is the opinion that the separation of subjects is not desirable and the learning is ought to integrate the life and the knowledg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earning of integration essay is similar to the Korean education's purpose. The meaning of integration essay as the thinking and learning device is similar to the role of Korean Education in the school education. And this study is proposed that the Korean Education and the Korean education teachers is playing the role of constructor of integration essay education, and then is being to the head of the normalization of education.

[Key words] integration essay, Korean Education, thinking and learning device